[주] 하랑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 673-2900

전남도민일보

24시 굿모닝 보석 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 촉진/뛰어난 발한효과
각종 노폐물 배출!
첨단 중앙로 152번길 31 T.062) 973-0365

제2401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5일)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전남도, 2020년 '가고 싶은 섬'에 영광 안마도·신안 선도 선정

'서해 해금강·수선화의섬' 각각 50억 지원
섬 별 특성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실행
"살기좋은 섬·가고 싶은 여행지로 컨설팅"

전남도는 '서해의 해금강' 영광 안마도와 '수선화의 섬' 신안 선도를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안마도 써쿠리바위 일몰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서해의 해금강' 영광 안마도와 '수선화의 섬' 신안 선도를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선정은 6개 시군 9개 섬에 대해 섬의 고유한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주민 참여 및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2개 섬에는 2020년부터 5년간 각각 50억 원을 들여 섬별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소득 기반 구축,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섬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대학 운영 등 섬 가꾸기를 지원한다. 영광 안마도는 우리나라 서쪽 영해를 결정짓는 직선기선의 한 끝이다. 영토적 차원과 수산자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부한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 특색을 살린 청정 생태여행지로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마도에는 113세대 187명이 살고 있다.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애와, 단면 모양이 육각형·오각형 등 다각형의 긴 기둥형태 기암괴석인 절리층이 바다 한가운데 웅장하게 솟아 절경을 이룬다. 수령 300년이 넘는 동백나무 군락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뽕잎피나무 등 총 390분류군의 수종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해안숲을 간직,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린다.

신안 선도는 일명 수선화 여인(현복순·88)이 10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 수선화를 심어 매년 3~4월이면 수선화 꽃과 향이 가득, 수선화 섬으로 알려졌다. 지난 봄에는 임야를 제외한 섬 전체 70% 면적에 100여 종의 수선화를 심어 제1회 1004섬 수선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선화를 예술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충분하고, 육지와 가까워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술휴양 섬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 섬에는 163가구 260명이 살고 있으며 봄이면 200만 송이의 수선화와 청보리, 유채꽃이 바닷가 풍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이다. 낙지, 맛조개, 감태, 농게, 칠게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전라남도의 대표 섬 정책이다. 그동안 5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기준도 읍면 소재지와 인구수 제한사항을 폐지해 규모가 큰 섬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는 14개 섬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관광객을 위한 기초 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문을 연 8개 섬의 경우 마을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특산물 판매 등으로 3년간 14억 7천만 원의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했다. 섬 관광객은 91만 2천 명으로 사업 시작 전인 2014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45가구 59명이 귀어했다. 올 들어선 6월 말까지 12가구 14명이 귀어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개 섬은 2020년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주민은 살고 싶고, 여행자는 가고 싶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태 여행지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與 "한국당, 광주AI클러스터 예산 삭감하려 해…적극 막겠다"

광주시와 예산협의… "5·18 진상규명위 예산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광역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 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을 추월할 돌파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인공지능(AI)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왔다"며 "AI 클러스터 조성에 편성된 내년 예산 426억원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의 하나로 광주 AI 클러스터를 꼽은 것과 관련, 이 시장은 "광주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잘못 이해한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연구소와 빅데이터 센터 설립, 슈퍼컴퓨터 구축의 효과는 전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사업 근거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AI 클러스터 예산과 관련, "한국당이 이 예산을 표적으로 삼아 대폭 삭감하려는데, 예산마저도 지역적 편견의 볼모가 되는 듯하다"면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정책방향이 그대로 실천되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AI 산업 육성 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건의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망언' 이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비판이 일었던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두고 "망언 관계자 징계는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데, 예산은 깎으려고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관련법이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앞뒤 안 맞는 분별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과연 집권했던 정당이 맞나 싶다"며 "진상규명위 활동 예산 삭감 주장은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 예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